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월보

2012
제228호(통권447호)

2

- 장학특집 /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 진단과 대책
-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관지에 각자의 포스트잇 붙이기
비슷한 항목은 분류하여 그룹핑하기(4가지 정도)
대표할 수 있는 만종특성을 다른 색 종이에 적기



2012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교육기부운동 활성화
4.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5. 국토사랑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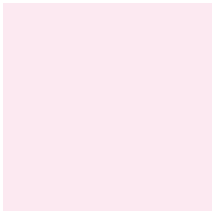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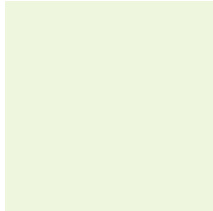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2. 2 제228호(통권447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 칼럼

08 특집 /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 진단과
대책

30 좋은 수업 다지기

37 교육정보

38 특색교육현장을 찾아서

40 명품학교, 명품교육

51 교원연수 현장을 찾아서

59 전문가초대석

62 문화이야기

65 참여마당

69 지상갤러리

• 사회가 함께 건강해져야 합니다 / 고영진

• 제자와 친구가 되는 세상에서
스마트 교육으로 스마트 워너 되기 / 신진용

• 학교 내 집단 따돌림 및 폭력현황과 대책 / 조정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계획 / 김선동

• 학부모 지원 정책 이렇게 추진됩니다 / 허연수

• 청소년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 / 김미연

• 항상 기적을 바라는 아이들 / 이승석

• 바리미고우미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방안 / 조재수

• 자이존중감 증진과 생명존중 정신 함양을 통한 자살예방교육 / 김형만

• 학교폭력과 학생자치 문화 / 이필우

• 어린이 과학자 프로젝트로 재미있게 여는 과학 세상 / 우광민

• 퀴즈식 조별 탐구 학습 방법 / 정종규

• 그림책으로 쉽고 즐거운 국어시간 만들기 / 예승헌

• 이달의 교육기부 / 백운영

• 情·體·知로 꿈을 키우는 용원 놀품 교육 / 전현수

• 스스로 능력을 키워 봉사하는 사람 / 오창호

• 자녀와 함께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 강대종

• 21세기는 문화시대-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 김팔룡

• 1·2학년 복식학급 한 해를 마치고 / 김언희

• 사랑과 배려로 키우는 BEST 위림교육 / 김양희

• 수요자 중심·참여형 연수 실현, '초등1급정교사격연수' / 박봉헌

• 현장 교사 지원을 위한 수업컨설팅 직무연수 실시 /곽경희

• 배움의 공동체 직무연수 / 강순옥

• 추위와 물러거라. 우리는 동영상 공부하러 간다! / 최재영

• 페이스북의 특성과 활용법 / 최재용

• 경주 남산을 오르며 / 공현철

• 교 원 - 태극 너울 / 김동섭

• 학부모 - 2011. 장애학생 가족참여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 주석열

• 학 생 - 시루봉 등산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 임도경

• In to the sky / 신광수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3월호 모집 기간 : 2012년 2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2년 2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아이들을 위해
사회와 학교,
가정이 하나가 되는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가 함께 건강해져야 합니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첩에 <서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8세기 글방의 훈장과 학동(學童) 묘사가 빼어난 걸작입니다. 아이는 방금 훈장에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눈을 깔고 서러움에 복받쳐, 흐르는 눈물을 찍어내면서 바지 대님을 만지작거립니다. 훈장에게 등을 돌린 채로 말입니다.

책상 너머 아이의 등판을 물끄러미 내려 보는 훈장의 표정에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어린 제자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지만 그림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표정이 웃깁니다. 마냥 고소해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웃음을 터뜨렸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아이도 있습니다. 친구가 매를 맞고 우는데 신이나 웃다니요? 좋아 어쩔 줄 모르다니요? 그러고 보면 맞은 아이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이 사회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은 연구보국(研究報國)과 개과불린(改過不吝)의 자세로 지난 겨울방학을 휴식보다는 연수와 연찬으로 보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겨울방학 내내 언론을 통해 학교 폭력에 관한 여러 말들이 진단과 대책의 이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 이슈는 아니더라도 그 양상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경남의 교육현장에서는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 운영을 통해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과 지(知)·덕(德)·체(體)가 조화로운 전인교육을 위해 꾸준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여러 유형들의 문제들을 양산해 냅니다. 교사의 자리, 선생님의 역할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아이들, 즉 선생님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인 그들에게는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빈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荀子)의 성악설(性惡說)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상은 서로 확연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맥락을 가집니다. 사람이 본디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착한 성품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만약 악하게 태어났다면 외부의 가르침을 통해서 착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맥락 말입니다. 이렇듯 교육은 참으로 큰 힘을 가집니다. 바로 그 큰 힘은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더해질 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도민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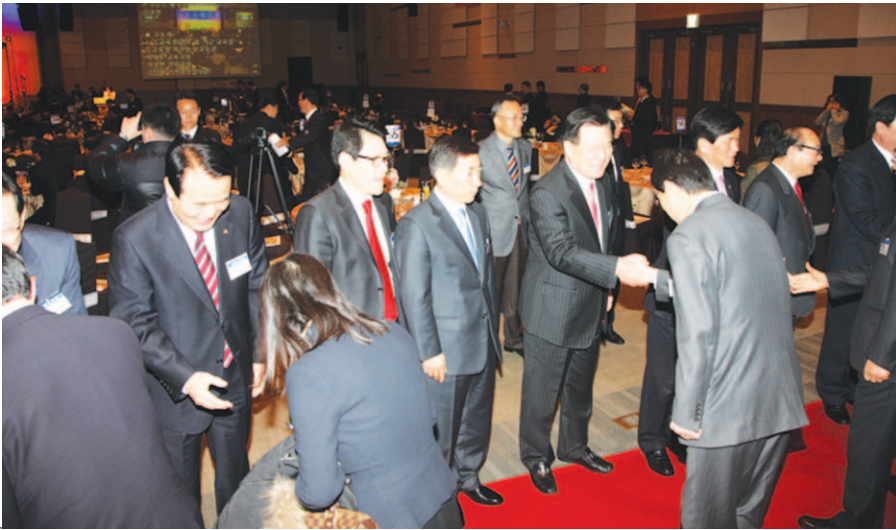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한 가정에서 연속적으로 폭력성이 있는 유해 사이트에 접속 하면 인터넷 통신사에서 그 가정으로 전화 연락을 취합니다. 혹, 청소년이 폭력적인 콘텐츠(contents)에 노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보호자에게 각별한 관찰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회와 학교, 가정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학교와 함께 도민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동참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새 학년을 여는 3월이 다가옵니다. 새 학년에는 훈장님에게 야단 듣는 한 친구를 위해 그를 둘러싼 여덟 명의 친구 모두가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교실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2012. 2.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2012년 신년 인사회
- 02 진주노인요양원 성금전달
- 03 39사단 징병 위문
- 04 경남 교육상 시상식
- 05 일본 오가야마현 교육위원회와 MOU체결
- 06 경남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개소식

장학 현장



07—



08—



10—



09—



11—



12—

- 07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교원컴퓨터연수 실시
- 08 경남유아체험교육원 - 방학중 중일제운영 지원을 위한 체험활동
- 09 김해교육지원청 -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 10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2011. 학교평가 워크숍
- 11 창원도서관 - 꿈나르미 북버스
- 12 함안교육지원청 - 2012. 창의적 교육계획 수립 학교장 워크숍

제자와 친구가 되는 세상에서 스마트 교육으로 스마트 워너 되기



신진용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직업과장

스마트 시대에 소셜네트워크(SNS)등을 활용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학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교육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동력이다.

지난 1월에 특성화고등학교 유공 교원들과 함께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무를 맡았던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50GB 클라우드(Cloud)에 그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공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기록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CD 70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많은 자료들을 하드웨어에 증속시키지 않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도 같은 곳에 저장한 후 수많은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클라우드의 정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접해본 소감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디스켓에서 CD로, USB로, 외장HDD로, 웹하드로, 클라우드까지. 가시적인 저장 매체와 웹상의 특정 공간을 벗어나 컴퓨터가 없어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다운로드 없이도 수백 권 분량의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Big Data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데스크탑 컴퓨터 앞에 앉아 웹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던 것에 대해 얼마나 감탄했던가! 웹이 전 세계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었지만, 회사 컴



퓨터나 가정의 컴퓨터 등 고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의 스마트기기이다. 즉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통신, 모빌리티(Mobility)의 시대가 온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사용한다는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에 있는 친구와도 교류하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알 수도 있는 친구’ 목록에 떠서 친구 신청만 하면 쉽게 동료, 후배, 제자,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사용자 위치 정보 공개로 이제는 낯선 곳에서 여행이나 출장을 온 친구를 만나는 일도 우연이 아닌 소셜의 시대가 왔다. 기능과 목적의 차이는 있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 커머스, 링크드인으로 이야기되는 소셜 네트워크의 세상에서 책상 위의 컴퓨터가 주머니 속으로 이동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 든 기기만으로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반 아이들의 2/3가 스마트폰을 갖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을 한 번 보라. 아이들의 문화가 담겨 있는 카카오톡은 나이, 성별, 담임, 학생의 구별이 없는 수평적 관계의 친구들 세상이다. 오늘날의 교사는 스무 명 혹은 서른 명이 한꺼번에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손안의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들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들과의 대화에도 짚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IT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솔로모(SoLoMo)를 이야기하고 있다. Social, Local, Mobile을 줄인 말이다. 스마트 기기와 초고속 모바일 네트워크가 만나 무궁무진하게 창조될 놀라운 세상. 2012년 IT분야의 최대 키워드는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Big Data), 모빌리티(Mobility), 소셜(Social)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계속하여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 2천만 명 시대에 맞추어 ‘스마트 교육을 통한 교실혁명’의 교육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스마트 DNA, 스마트 워너, 스마트 워커라는 말들이 익숙하게 들려오는 스마트 시대에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교육자원 활용으로 창조적 학습 환경 제공에 대한 요구가 추상적이고 소극적인데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교육은 사회의 변화에 맞춘 교육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동력이다. 이러한 스마트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우리 모두가 스마트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디지털교과서 활용, 온라인 수업 및 평가, 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및 역기능 예방 등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고, 스마트 교육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 및 폭력현황과 대책



조 정 실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1. 시작하는 말

최근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하는 국어, 영어, 체육 수업과 같은 학교생활의 일부이다. 이렇듯 학교생활의 일부인 학교폭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어렵고,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은 요원하다.

2. 학교폭력의 문제와 주의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1년 이상 같이 생활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게 된다.

폭력에 대처하는 학부모의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이해한다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처음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혹해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자녀가 다시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3. 학교폭력발생 시 대처법

학교폭력 발생 초기의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학교폭력을 해결 불가능한 일로 인식하거나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 이러한 어른들의 무지와 잘못된 대처는 인해 학교폭력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가. 사건 발생 시 교사의 대처법

- 1) 피해자 위로 : 상처받고 놀란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 2) 해결의지 표명 : 사건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다.
- 3) 증거수집 : 학급 내 무기명 설문을 통해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확인하고 가해 정도를 파악한다. 또한 아이들을 면담하면서 증거를 수집한다.
- 4) 사태파악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신속히 분리하고 양쪽 부모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 5) 사태수습 : 가해부모에게 사태수습을 위해 부모의 동의하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다. 아이는 사과를 통해 잘못에 따른 용서를 구해야 함을 알린다. 교내 처벌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고 양쪽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안내한다.
- 6) 사태해결 : 가해자부모의 적극적인 사과와 해결의지가 있다면 재발방지 각서가 필요치 않다. 하지만 가해자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증거를 제시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둔다. 이때 다른 아이를 시켜서 괴롭히는 것까지 포함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 7) 전체교육 : 학급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 처벌 후 반성을 통해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급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4. 폭력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과 주의사항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예방교육에 앞서 대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나 대전 여고생 자살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목소리가 부모나 교사가 심각성을 미리 감지하고 올바른 대처만 했어도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다. 이처럼 죽음으로써 고통을 잊고자 하는 절박함 속에서도 왜 부모에게조차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인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고가 난 후 피해부모님들 모두 자신의 무지를 한탄하며 괴움을 토해낸다.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피해학생들이 늘 함께 생활하는 교사나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도움을 요청해 봤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교사의 3자 대면 등 피해자 보호를 염두에 두지 않은 해결방법은 더 큰 고통과 보복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들 모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징후를 보이게 된다. 이때 올바른 대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예방 방법이 되는 것이다. 따돌림, 괴롭힘,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학생이 다시 교실 속으로 돌아갈 것인가, 제 2의 피해 제 3의 피해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우리 학부모와 교사의 대처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 사건 발생 시 대처방안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 1) 공감적 인식 : 가장먼저 사건당사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통해 안정을 시킨다.
- 2) 해결의지표명 :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피해자는 불안감을 넘어서 교사를 믿고 신뢰하게 한다.

- 3) 공론화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무기명 설문조사의 형태를 빌어 학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게 가해자, 피해자, 반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보한 후에 양쪽 부모에게 사실을 알린다.
- 4) 화해와 중재 : 피해자부모에게는 위로와 함께 사실에 근거해서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안심시키고 당혹해 하는 가해자부모에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양쪽 부모를 모두 진정시킨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아이를 잘 지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과, 반성, 처벌, 치료비 지원, 재발방지 약속 등의 절차를 안내한다.
- 5) 사과와 용서 : 용서와 화해를 통해 원만한 친구관계로 돌아가 다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자고 부모를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피해자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자존심 회복과 더 이상의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양쪽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안내한다. 가해자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증거를 제시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둔다. 이때 다른 아이를 시켜서 괴롭히는 것까지 포함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 6) 명예회복 : 학급에서 전체교육을 실시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과 반성을, 피해자는 자존심 회복과 용서를, 아이들은 폭력의 나쁜 점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실분위기를 쇄신한 교사는 학급운영의 자신감을 갖게 되고 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 효과적 대처행동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교사와 학교는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는데 피해자, 가해자 부모 측 모두가 학교를 불신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워 항의하니 학교는 우왕좌왕하다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서로 간에 알아서 하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징계는 물론이고 피해, 가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법적소송으로 갈 경우는 피해·가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학교 모두가 커다란 고통을 안게 된다.

▣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효과적/비효과적 행동

효과적 대처행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들을 잘 관찰한다(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② 주변학생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 ③ ‘내 사전에 학교폭력은 없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④ 반드시 부모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아이들은 교사 앞에서 안한다 고 하고는 돌아서서 다른 아이를 시켜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⑤ 학급에서 공론화시키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다.
---------------------	--

비효과적 대처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실과 학생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 ②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부인한다. ③ 혼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모들에게는 오히려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④ 징후 발견 시 주변 친구에게 물어보고, 삼자 대면을 한다. ⑤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시킨다. ⑥ 문제아들은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초기 대처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해자 중심으로 대처한다. ② 증거 자료를 수집할 때 주변 친구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주변 친구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에게 사실 확인은 마지막에 한다. ③ 사건 발생 당일, 그 즉시 사실을 확인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왜곡되게 된다. 집단폭행의 경우 가해자들이 증인을 서고 쌍방 폭행으로 뒤바뀐다. ④ 사실 확인을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불러 삼자대면하지 않는다. 피해학생은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축소하고 부인할 수 있게 되고, 가해학생도 대부분 부인한다. 이러한 방법은 보복폭행의 지름길이 되며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사건이 확대되기 쉽다.

6. 마치는 글

학교폭력이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에 상처가 되는 말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는 가정교육의 탓으로 돌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부모는 교사들의 인일한 태도에 불만을 표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는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부모는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피해학생이 학교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 피해자도 자존심 회복을 통해 친구관계로 다시 돌아가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기술과 절차를 알아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해야 한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반목으로 불신이 깊었다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을 잘 해결하여 교사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학부모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교사들이 학교폭력 대처에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계획



김 선 동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I. 들어가며

오늘날 학교폭력은 날로 심각성을 더하여 학교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기의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창시절 성장과정에서 입은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상처받는 학생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운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학교폭력 대책의 가장 중심에 두었다. 실행방안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가정, 학교, 유관기관의 연계성을 통한 예방측면에서의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학교내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전 초·중·고등학교에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II. 학교폭력 실태 분석

○ 2010/2011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기준(2012.1.12)으로 2010년에는 226건, 2011년에는 200건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함
- 발생건수에 비해 가해학생수와 피해학생수가 많은 것은 학교폭력이 점차 집단화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학교폭력의 81.5%가 주로 학교의 일과 중에 발생하며, 발생빈도로 보면 점심시간 전후와 하교시간, 등교시간, 기타 순으로 발생함
- 학교폭력의 유형이 폭행(69.5%)과 금품갈취(17.5%)가 대부분이며 상해, 언어폭력(모욕), 따돌림, 협박, 기타 순으로 발생함

Ⅲ.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1. 인성 교육 강화

○ 특색과제 운영

- 2011 학년도 우리교육청의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 를 계속적 특색과제로 하여 토요일무제와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

○ 친구사랑 운동 전개

- '친구의 날' 과 '친구사랑주간' 을 범도민적인 행사로 확대 : 반목과 경쟁이 아닌 친구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안 운영

○ 전통예절교육

- 경남도내 27개 향교와 서당, 전통예절 분야의 유능한 개인 또는 단체와의 교육기부협약 체결 : 예절교육 인력 확보로 '찾아가는 전통예절교실' 운영

○ 봉사활동 강화

- 전 학교가 하나 이상의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과 연계한 학생봉사활동 실시 : 학교단위, 가족단위 봉사활동 조직·운영

○ 인성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활용

- 학생용 : 「어울려 함께하는 우리들 참 세상」(중학교용), 「참누리 마음 길라잡이」(고등학교용)
- 교사용 : 「효제·전통문화계승교육을 위한 꿈나르미 인성교육」 자료집 및 지침서

2.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 CCTV(전 유·초·중·고등학교 설치 완료), 안심 알리미 서비스(전 초, 특수학교 운영), 배움터 지킴이(전 학교 확대 배치)

○ 위기학생 식별과 처방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성 제고

- 경남교육연수원에 생활지도 직무연수 11개 강좌 개설, 신규교사를 위한 생활지도영역/방법 맞춤형 직무연수, 기본생활습관지도, 학교생활적응지도, 민주시민성지도, 학교폭력 예방연수 등 실시
- 지역교육청의 직무연수 시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관련 내용을 2시간 이상 포함하는 등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
- 전교사 대상 3년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 필수 참가
※ '학교성과평가' 시 생활지도관련 직무연수 이수율 반영

○ 학교 내 순찰활동 강화

- 담임교사의 조·종례 실시 의무화 및 상담활동 강화
- 학교보안관(학생자치회 간부 및 선도부원, 교사, 배움터지킴이, 학생상담지원 봉사자, 학부모 도우미 등) 구성으로 교내 순찰 강화
 - 쉬는 시간 층별 교사 순찰조 편성·운영
 - 점심시간 학생자치회 순찰조 편성·운영
 - 등·하교시 생활지도 담당부서 및 배움터 지킴이 편성·운영, 학부모 순찰조, 경찰지구대 협조 순찰 강화

- 학교문화 개선 사업 지속 추진
 - 학생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및 활성화
 - 학생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언어순화 운동 전개
 - 학생 옴부즈맨 (학생 고충 접수· 해결을 위한 학교생활 학생모니터단) 구성· 운영
- 학생 / 학부모 연수 실시
 - 학교폭력 관찰 능력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학부모 연수
 -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고취를 위한 학생/학부모 학교폭력예방 연수 실시(3월/9월 실시)
 - 학교와 경찰청의 협조를 통한 범죄예방교실 운영 (3월 중)
 - 긴급사태 발생 시 즉시연락체계 마련 - 긴급전화(117) 단축키 설정
 - 소중한 생명사랑 자살예방교육 실시(연 2회)
- 학부모회 활성화
 - 학부모와 교사의 대화의 시간 확보 및 정례화 운영
 -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회 강좌/ 직장교육 개설 운영
 - 등·하교 시간 경찰/교사와 함께하는 학부모 순찰대 조직· 운영
- 24시간 학교 폭력 신고/보고 체제 구축 운영
 - 학교폭력 24시간 신고체제 운영(긴급신고 및 상담전화: 117, 1588-7179)
 - 학교별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고함 설치 및 학교폭력 SMS 신고 ‘1004’ 확대
 - 신속한 보고, 미보고에 대한 조치 강화 : 사건 발생 건수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미보고, 원인규명 또는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자 엄중 문책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연 1회(1월중) 전 학교 전수조사
 - 교육청 (민간기관 위탁, 학교폭력실태 표본조사)은 연 2회(4월, 10월) 실시
 - 학교 단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3.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 운영

우리 도내학교에서만 한 해 약 3,000명의 학업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안교육이 학교폭력과 학업중도탈락이라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설립으로 학교부적응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모든 학교의 전 선생님들이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며, 모든 학교는 대안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의 한 방안으로 2011학년도에 50개교에서 ‘학교내 대안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지난 1년간 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2년 3월부터는 전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학교내 대안교실’을 설치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였다.

-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방안
 - 전 초·중·고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2012년 1월)
 -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계획 수립(2012년 2월중)
 -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및 시행(2012년 3월)

○ 대안프로그램 운용 방안

- 학생의 흥미와 특기·적성에 바탕을 둔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운영 → 교내·외 유관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실시
- 위기(피해)학생 1:1 전담교사멘토링 → 원스톱 상담 및 치유서비스 제공
- 위기(가해)학생 1:1 전담교사멘토링 → 도움반(특수학급) 체제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Wee Class↔Wee Center↔유관기관 연계교육

○ 고위험군 학생 관리체제 강화

-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지원(멘토 교사 100명)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고위험군 학생과 존경하는 교사를 1:1로 연결, 상시 연계체제 마련 및 방화 중 캠프 등 운영
- 고위험군 학생의 개인 신상 관리 - Wee센터,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 대안교육기관 신/증설

- Wee스쿨(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 설립 (2013년 3월 개교 예정)
- 공립대안중학교 : 2개교 설립 추진 예정
- 전국 최초 공립대안고등학교 (태봉고) 설립 : 1개교 추가 설립 추진 예정

4. 치료/교정제도 활성화

○ 학교 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운영의 활성화

- Wee클래스 264개, Wee센터 9개, Wee스쿨 1개 (신설 예정)에 총 103억원의 예산, 568명의 인력 (전문상담교사 등) 확보
- 지역 청소년 봉사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Wee클래스 운영자 교육/ 컨설팅 실시 등 Wee센터 기능 확대

○ 피해학생 보호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원스톱 상담 및 치료

○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 학생 / 학부모 공동 책무성 제고

IV. 맺음말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 학교,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인프라이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라는 틀 속에서 함께하는 교육에 있고, 주체는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선생님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권위와 교권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 입안과 함께 스승공경의 풍토조성이 선결요건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우선 되어야한다. 따라서 교사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진작, 전문성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단 한 명의 학생의 꿈도 중도에 꺾이지 않도록 하는 교육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 지원 정책 이렇게 추진됩니다



허연수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I. 학교가 학부모를 부릅니다

2009년부터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이 시작되면서 학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였으며 사회의 요구, 학교의 요구, 학부모 요구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부모란 학교로부터 배워야할 교육대상자로,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언할 수 있는 교육동반자로, 학교에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교육수요자로, 학생들의 교육에 동참하는 인적자원으로 정리되면서 학교와 교육청이 학부모를 지원해야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II. 2012년 중점 추진내용은 이렇습니다

1.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 확산

추진과제	추진 내용
학부모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연수, 교육기부 등 학부모활동 지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선정
시범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 참여 활성화 모델 개발 아버지 학교참여, 학부모 교육기부 활동 활성화
문화 확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컨설팅 체제 마련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단' 구성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사례 발굴 확산

2. 학교 - 학부모 파트너십 구축 지원

세부과제	추진 내용
학부모 상담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 학기별 1회 이상 개인 또는 그룹 상담 실시 학기초에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계획 사전 공지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가정방문 상담 실시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1회 이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등 학교교육 운영계획 설명 학교운영 관련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지
학부모회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회 활동, 학부모 교육기부 활동이 편리하도록 여유 공간을 이용한 학부모 공간 확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회위원 선출 비율 확대 학교운영위원 사이버 연수 시스템 구축

3.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 강화

세부과제	추진 내용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교육정책 모니터단 상설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집행·평가·보완
학부모의 교육(재능)기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재능)기부형 학교참여를 활성화하여 진로·생활지도, 창의 체험학습 등에 학부모 참여 확대

4. 학부모연수 내실화

세부과제	추진 내용
학부모연수 확대 및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 학부모지원센터-교육청간 역할 체계화 학부모 리더 양성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원 및 행정직원 대상 학부모 학교 참여 정책 연수
맞춤형 학부모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벌이 및 소외계층을 위한 학부모연수 편성(야간 및 주말과정)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취약계층 학부모연수 지원 서비스 강화

Ⅲ. 학부모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합니다

학교는 보이는 학교와 보이지 않는 학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학교란 학교건물, 시설, 교사 수, 학생 수 등과 같은 인적·물적 환경을 말하며 보이지 않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교를 움직이는 교육과정,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분위기, 교사들의 책무성,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부모의 학교 신뢰 등 학교의 실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학부모는 주로 보이는 학교에 후원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학교 참여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지금의 학부모는 보이지 않는 학교에 참여하여 기획부터 운영 결과까지 함께 해야 할 교육동반자로서 교육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하나되어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미래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학부모의 잠재적 역량을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2012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교육본질에 더욱 충실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

청소년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



김미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장

2011년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한 중학생의 자살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가해행동이 담긴 피해학생의 유서는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이 더는 아이들의 장난수준으로 치부될 수 없는 것임을 어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 국민의 관심이 학교폭력에 몰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시해야 하는 적기임에 틀림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예전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 해왔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들은 1년에 2회 씩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기관은 각급 학교에서 폭력예방 프로그램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간의 특별 강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짧은 시간 동안의 강의인데다가 선생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의 시선과 귀를 모을 수 있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사건이나 학생들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면 학생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학교 폭력 관련법 규정과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마음대로 빌리고 갚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금품갈취부터 시작하여 친구들 간의 폭행 장소에 2명 이상이 있으면 집단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대부분 아이들은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끝내고 나면 대부

분의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하면 안되는 행위들에 대해 기억해 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폭력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 분위기를 흐리거나 예방교육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수준에 다다른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아이들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년 전부터는 경남에너지사의 후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인형극을 도내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형극은 아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좋은 결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각급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의 참여 의지가 높지 않아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참여 하는 아이들은 다들 친구들에게 폭력은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친구들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 하나는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점점 늘어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 게임중독과 학교폭력 문제가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여, 게임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게임문화교실 또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게임에 대해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게임에 대해 올바로 알고, 또 올바른 게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 교육과정 강의 및 심화 과정에서의 보드게임을 통하여 쉽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게임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른과 아이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사후 관련한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이며, 특별교육이란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또한 학교폭력에 이미 노출되어 처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방이라기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본 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협조 아래, 저연령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과 확대, 의무화를 통해 여러 방향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예방교육 계획을 세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게임문화교실 강의및 인형극



항상 기적을 바라는 아이들



이 승 석

대안교육위탁기관 범속학교 교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든 날들의 연속이죠. 꿈은 지꾸 멀어져만 가고 나의 사랑도 지쳐만 가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적을 바라죠. 두려운 맘에 또 작은 기대에. 하지만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기적 같은 일이죠. 그대가 서있는 지금 그곳에서 힘을 내요. 그대는 약하지 않아요!’ 이 노래 가사는 범속학교 학생들이 공연한 창작뮤지컬 ‘기적’이라는 노래가사이다. 이 가사에서 우리는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심리와 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프로그램의 소개나 지도사례에 앞서 위기의 청소년과 함께 교육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의 청소년’들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청소년기에 가정, 학교, 사회의 폭력과 따돌림으로 상처 받은 사회의 피해자이며, 배척과 질타에 쫓겨 허탈과 방황으로 제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보호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사랑과 보호의 치유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야 할 내일의 시민들이기에 이들 개개인이 성장기에 겪고 있는 정서적인 상실감과 학습의 결손을 보상하고 보완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시스템화가 현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범속학교는 이 역할을 하는 것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

위기청소년 개개인의 생존에서 나아가 인격함양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와 능력을 기르는 교육복지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실행해야 하므로 범속학교는 일반적인 각종의 인성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화된 제도권의 정규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기능, 지식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건전한 생활인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그래서 매년 아이들에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만나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특화프로그램 <아름다운도전>은 자신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스스로 삶을 일구어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매해 극기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위기청소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고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이 프로그램은 성공한 도전체험을 통한 자존감 회복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아름다운 도전>은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깨닫게 하여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존엄과 당당함이 성장으로 피어나 환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특화프로그램이다. <아름다운 도전>의 역사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태동기였던 2002년 여름 '임진강에서 땅끝마을까지' 17박 18일간의 '걷기'에서 시작되어 인제 내린천에서 한강 여의도까지의 래프팅,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복지기관과의 교류 탐방, 백두대간 구간별 정상 등반, 황지에서 낙동강까지 자전거 종주, 네팔 돌 깨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증축과 봉사활동, 여성인권을 위한 전국 5개 도시 순회 연극공연,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하는 마을 봉사활동인 <만남, 그 새로운 시작>과 낙동강길과 섬진강길을 따라 걷는 가족여행 프로젝트 <다시 쓰는 가족이야기>, 숨겨진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한 극기 도보와 아이들 스스로 기획하여 여행한 울릉도, 독도에서의 프로그램인 <독도, 그 섬에서 힘을 찾다>등은 자신의 참자아를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 준 주요 프로그램이다.

또 하나의 사례인 뮤지컬은 범숙학교의 전인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위기청소년들이 연극을 통해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억압과 상처를 드러내고, 들여다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정화와 통찰, 치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1999년 제 1회 범숙학교는 무지개 극단을 창단하여 '니끼내끼'를 시작으로 청소년 인권문제를 다룬 '철부지들', '뮤지컬 춘향전'과 상처받은 아이들의 진솔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극으로 엮어낸 창작뮤지컬 '엄마 엄마', 밀양연극촌에서 지도 받으며 함께 만들어간 '천국과 지옥'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등을 공연하였다. 특히 2008년 '엄마 엄마'는 세계여성인권대회 초청공연으로 전국투어를 하면서 청소년의 문제가 곧 사회문제며 인권 문제임을 알리면서 이 시대 청소년을 대표한 자아 외침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뮤지컬은 자신들이 정면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분노와 상실감을 안전하게 드러내는 장치로써 위기청소년의 정서적 균형을 잡아주고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심층적인 내면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긍정적 자기표현과 자기계발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신감을 부여하고 자아를 찾아가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아탄력성으로 생활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범숙학교는 해마다 뮤지컬을 하게 되었고 그 횟수가 12년째로 2011년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1500여 명의 관객을 모시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끝냈다. 범숙학교의 아이들은 뮤지컬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한다. 자신의 어려움과 갈등, 방황을 연극이라는 또 다른 공간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내어 놓은 여행의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참자아를 찾아가며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무한한 에너지는 희망의 꿈으로 펼쳐나간다.

범숙학교 학생들은 항상 기적을 꿈꾼다. 그 꿈은 소박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다. 그러나 범숙학교에서 만나는 자신의 참자아 속에서 아이들은 기적이 아니라 희망을 꿈꿀 수 있다. 가까이 있으면서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길 수 있는 현실로써 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권리와 미래가 있다. 기적으로 표현되어질 그 꿈속에 아이들은 피어날 것이다.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방안



조 세 수
창녕 영산초등학교 교장

바르미 - 자기분노 조절 방법 습득으로 바른 행동을

고우미 - 올바른 언어사용 방법 습득으로 고운 말을 익혀요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은 자기분노 조절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본교에서 개발한 학년군별 맞춤형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다.

1.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들이 가지게 되는 욕구를 구타, 위협, 놀림이나 따돌림, 언어폭력 등과 같은 학교폭력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이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소통과 배려의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고 올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등의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학년군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분노조절 프로그램인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자기분노 조절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2.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의 개발

먼저, Novaco의 분노수준질문지를 활용하여 본교 이동의 분노수준을 살펴보고 분노지수에 따라 7개 이동군으로 나누었다. 분노지수가 가장 높은 분노고위험군 이동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센터의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개인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이동을 대상으로 Wee클래스와 창녕교육지원청 순회상담교사를 활용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워크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저·중·고학년으로 나누어 학년군별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의 구성체제는 크게 '바르미고우미 교수학습과정안'(교사용), '바르미고우미 학습장'(학생용), '수업용 ppt자료'(교사·학생 공동사용)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이 세 가지의 자료는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묶음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영역	제재	학년군		가정학습 (학년군)	적용 시간
			저학년군	중·고학년군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	언어폭력	언어폭력 예방	1회기	1회기	저·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재량활동, 학교폭력 예방 주간
		사이버언어폭력 예방	1회기	1회기	저·중·고	
	자기분노	감정 들여다보기	1회기	1회기		
		화다투기	1회기	1회기	저·중·고	
		생각 변화시키기	1회기	2회기	고	
		행동 변화시키기	1회기	2회기	저·중	
	생활 점검표		월별 점검표로 제시			
총 회기수			6회기	8회기		

3.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의 적용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은 저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중·고학년은 재량활동 8시간 씩을 확보하여 지도하였으며 심화·보충이 필요한 제재는 해당교과의 연간 수업시수를 증배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 제고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학부모 상담주간을 학기 별로 운영하여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 하는데 기여하였다.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 적용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3월과 9월에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전개하였으며 7월과 10월에는 친구사랑 주간행사 실시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 학년군별 적용모습〉

4. 프로그램 적용의 결과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을 ‘감정 들여다보기-분노 다루기-생각변화시키기-행동변화시키기’의 단계로 개발한 것은 감정의 인지에서 시작하여 분노라는 감정을 스스로 다루고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매우 적절하였다. 또한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감정 및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 분노조절 실패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은 단기간의 특정 프로그램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르미고우미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함께 다양한 상담활동 전개 및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 증진과 생명존중 정신 함양을 통한 자살예방교육



김형만
창원 진해중학교 교감

1. 들어가며

최근 학교폭력 등에 의한 일련의 청소년 자살이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증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교통사고에 이어 사망 원인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살자는 정말 죽기를 원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이 겪고 있는 심한 정서적인 고통이 끝나길 바랄 뿐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자살위험 청소년 주변의 부모, 형제자매, 친구, 교사, 상담자 등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애정과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청소년 자살은 예방될 수 있다.

다음은 본교에서 시범운영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지도 사례이다.

2. 선생님과 학부모의 자살예방교육이 먼저다

가. 자살을 드러내 놓고 말하다

자살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혹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살의도를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보내는 경고신호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 자살이 충동성이 강하나 사전에 충분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단지 주위의 부모님, 또래 친구, 선생님들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와 전문가 초빙 특강을 통해 청소년 자살의 특징, 자살에 대한 진실과 오해, 청소년

자살의 촉발 요인, 청소년 자살의 위험 신호, 자살 징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입 방법 등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갔다.

나. 학부모와 함께 하다

학부모 연수회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본교 Wee클래스실에서 ‘사춘기 자녀와 소통을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13회기)’ 과 ‘학부모를 위한 미술치료와 자아성장 프로그램(11회기)’ 을 운영하였다.

3.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료 제공,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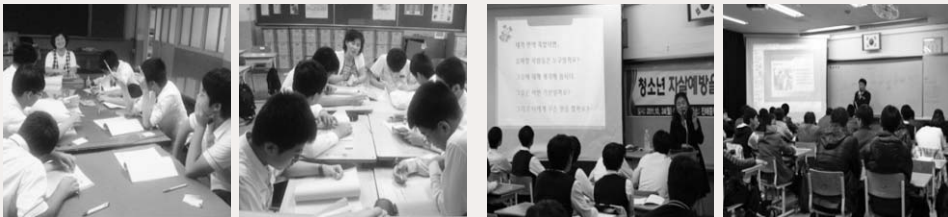
가.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 생명존중 프로그램 및 자살예방 교육 실시

생명의 전화 경남자살예방센터와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도움으로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생명존중 프로그램 및 자살예방 교육을 3학년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각각 4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나.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제공하는 ‘난 이주 특별해!’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본교 상담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1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1, 2학기로 나누어 각각 6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다.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청한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특강 실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모습〉

〈전문가 초청 특강 모습〉

4.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자살예방 보호 요인을 증가시키다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요인 - 학교폭력, 스트레스, 열등감과 자신감 결여 등을 제거해 주고, 보호요인 - 주위의 지지, 좋은 사회성, 생명존중 정신 함양, 성취에 대한 자신감 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전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하였다.

가. 생명존중 정신 함양을 위한 독서 활동

생명존중 정신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도서실에 ‘생명존중’ 코너를 설치하고, 생명존중 권장 도서 목록을 만들어 지도하였다.

나.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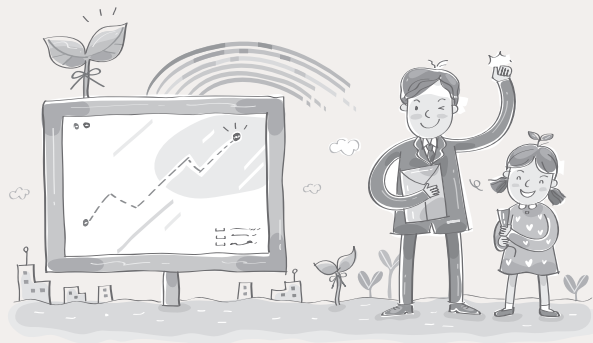
교과별로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단원을 추출하여 연간 지도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생명존중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다. 특별활동 등 다양한 학교 행사를 통한 생명존중 교육

활동명	활동내용
생명존중 표현활동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존중 U.C.C. 만들기 • 생명존중 관련 자료 수집 및 기사 스크랩 • 글짓기, 독후감 쓰기, 포스터, 캐릭터 그리기
자이존중감 표현활동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중하고 행복했던 추억 속의 자신의 모습 그리기 • 소중한 존재와 관련된 사진으로 꾸미고 소개하기 • 자신의 미래 모습 상상하며 그리거나 꾸미기
학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의사소통 활동, 게임을 통해 공감활동 • 부모님 발씻어 드리기
친구의 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하는 즐거운 놀이, 친구에 대한 배려 활동 • 학교폭력 추방 활동
부적응 학생을 위한 자이성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부적응 학생 13명 • 미술치료 및 자이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 및 자이존중감 표현 활동 모습과 결과물〉



학교폭력과 학생자치 문화

이 필우

창원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교사

요즘 학교는 온통 폭력문화의 온상처럼 비춰지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잠잠하던 학교폭력이 왜 이렇게 갑자기 터졌을까? 아니면 은폐되거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학교폭력이 이번 기회에 밝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들도 앞다투어 원인 분석과 대안 찾기에 바쁘다. 사정이 이러하니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정부의 모든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학교폭력 현실과 맞닿아 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가족, 학교폭력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문 상담자 및 해당 기관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강력하면서도 학교폭력을 행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책들은 일반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낙인효과를 통한 심리적 압박과 강력한 처벌과 책임 강화로 인해 학교폭력은 더욱더 은밀히, 교묘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은 증거 인멸, 쌍방폭력행위, 폭력 인지를 못하고 행함 등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려는 방안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1. 처벌과 격리만으로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학교폭력도 폭력 중 하나이며 학습된다.’ 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폭력적 환경에 자주 노출된 아동은 무의식 속에서 폭력이 학습되고, 자라면서 자신도 비슷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 폭력적 수단을 통해 표출하며 타인에게 전이된다. 필자가 조치한 가해학생의 대부분의 학생은 특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보다 평범한 가정의 학생이었다. 특수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일수록 폭력적일 것이라는 편견은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 새삼 가정환경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학교폭력과 개선되어야 할 학교 문화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일어난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조치 및 보호와 교육 등)은 학교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령)에 따른 절차로 인해 교육적 방안보다 행정적 처리가 우선된다. 학교 문화는 어떤가? 성적 중심의 경쟁만으로 평가된 문화를 추구하면서도 학교생활에서는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거나 가정환경이 고려되기보다 획일화된 생활문화의 수행을 요구한다. 고학년이 될수록 이러한 환경 속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학교생활은 청소년기에 감당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임에 틀림없다. 우리 학생들은 이 모든 것을 품은 채 높아만 가는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자로 내몰리기도 한다.

4. 학생(급)자치문화 활성화

학급생활이란 친구 간 부단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내외적 요인에 의해 긴장과 갈등으로 대립될 때 폭력으로 나타난다. 즉 상실감과 소외의 결과는 학생 개인에게 ‘왕따’, ‘은둔형 외톨이’, ‘학업 중단’, ‘가출’로 이어지거나, 학교(급)내에서 이를 보상받으려거나 스트레스를 풀어보려는 우발적, 집단적, 지속적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타 기관에서 조사한 전체 학교폭력 피해 분석자료에 의하면, 교실 43.8%, 복도 9.3%, 운동장 8.1%, 학교 화장실 5.3% 등 대부분 학교 내에서 발생하며 휴식과 점심시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결과가 이를 반증해 준다.

물론 학교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인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급)단위에서 모두 풀어갈 수는 없다.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회안전망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주체가 지혜를 모은다면 학교생활 부분만큼은 공동체와 협동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교과부는 이러한 가치가 단위학교에서 구현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보호·존중받을 수 있는 학급 내 소통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이를 표준화하고 지속될 수 있는 학생회 중심의 자치문화가 제도적,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획일된 시공간 속에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분노)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갈등은 발전을 위한 생산적 에너지다. 누구나 갈등을 품고 지내려 하지 않는다. 해법은 갈등을 바람직하게 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갈등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학생자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이제야말로 교육주체가 나서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결단을 도와주어야 하는 시점이다.

어린이 과학자 프로젝트로 재미있게 여는 과학 세상



우 광 민
산청 삼장초등학교 교사

요즘의 교육현장의 화두는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인성’인 것 같다. 21세기 세계시민으로서 보유해야 할 능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실천 방안 중 하나로 본 연구를 생각하게 되었다. ‘창의·인성교육’은 특정한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포괄적인 교육이며, ‘즐거움과 스스로 학습’을 강조하는 긍정적 이미지의 미래형 교육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는 과학교과와 연계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하여 우리 학급을 대상으로 과학을 재미있고 신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탐구 과제 수행 등을 경험하면서 예절, 배려, 협력, 존중과 같은 인성을 함양하여 창의·인성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르고자 하였다.

1. 과학자 프로젝트 기반 다지기

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Science All의 YSC반 ‘우리는 삼장어린이 과학자’ 방을 열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과학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탐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 관련 도서 공간 마련, 탐구 우수작품 게시, 과학 학습 내용게시 등을 통해 과학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홈페이지 -꼬마 과학자	홈페이지 -개인 탐구 탐재	과학 나무	탐구 우수작품 게시

2. 과학자 수업하기

수업 공개 시 적용한 수업모형은 발견학습모형이었다. 이 모형은 구체적인 물체를 대상으로 한 경험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시 수업의 목표는 진하기가 다른 용액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으로 본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진하기가 다른 용액의 특징을 알기 위해 첫 번째, 제시된 백설탕과 흑설탕을 이용하여 용액의 진하기에 따른 특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창의적인 탐구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험을 통해 안 사실을 실생활이나 과학적 현상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포괄적인 과학적 소양 함양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3. 창의적 수업 이끌기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하고 과학자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수업모형 전개 중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단계에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즉, 각 모듈에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똑같은 재료를 주고, 시간을 제한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총 만들기' 미션을 부여하였다. 이때 학생들에게 당도계와 같은 MBL 도구를 제시하여 과학자처럼 데이터를 측정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게 하였다. 평소에 MBL 도구를 사용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 측정을 하면서 실험을 수행했다. 두 개의 모듈 중 한 개의 모듈이 여러 과정을 거치며 성공을 했는데, 성공 과정을 발표함으로써 나머지 모듈과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4. 과학자 되기 프로젝트를 마치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아니면 혼자서 동전이나 간단한 생활용품으로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뿌듯하다. 아이들은 본래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교사는 과학 실험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순간이었다.

이번 연구가 아이들의 긍정적인 과학적 성향을 이끌어내어 적당하게 물과 양분을 주고 조심스러운 손길을 주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반 아이 중에서 꼭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해서 연구자에게 연락해줄 날을 기대해본다.

퀴즈식 조별 탐구 학습 방법

- 수학과를 중심으로 -



정 중 규
함양 안의고등학교 교사

요즘 학교에는 교과교실제와 블록타임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학생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퀴즈식 조별 탐구학습은 학습효과도 높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성을 기르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적인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구비되고 교실도 현대화되면 더욱 적합한 수업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조별 구성 방법

가. 1년에 4번 분기별로 편성하고 학기 초에 편성한 조는 중간고사가 끝나면 그 결과로 다시 구성한다.

나. 5~6명씩 성적순서로 조를 편성하고(반 편성하듯이) 조장, 부조장을 임명한다.

다. 조 편성할 때는 조장, 부조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들의 성향을 잘 살펴서 발표력이나 리더십, 또는 수업부진아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잘 배치해야 한다.

라. 조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하여 조별 이름을 짓게 하거나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2. 수업 진행 방법

가. 교사가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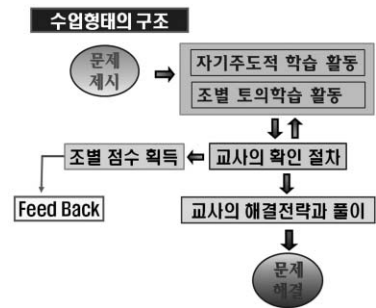
- 개념문제 : 조별 전체 토의, 자료 이용 해결법
- 연습문제 : 자기 주도적으로 풀고, 조별 토의 해결
- 숙달문제 : 시험대형으로 앉아서 혼자서 직접 풀기



- 심화문제 :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한 후 개인발표 및 전체토론
- 구조암기 : 각조 같은 수준의 조원 1인이 출전하여 암기하기
- 증명문제 :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증명문제는 교사의 설명 후 직접 증명하기
- 돌발퀴즈 : 간단한 문제를 교사의 설명도중이나 복습할 때 바로 질문하기
- 서바이벌 대결 : 심화문제를 조별로 풀고 나중에 푼 조가 먼저 푼 조에 질문하고 점수 획득하기

나. 수업의 실행방법

- 단원의 구조화된 문제를 먼저 제시함
- 먼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함
-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조별로 토의하여 문제를 해결
- 교사에게 확인하여 점수를 받음
- 교사의 해결전략과 상세한 설명 듣기
- 조원에 대한 조장, 부조장의 보조설명



3. 퀴즈식 조별 탐구학습의 효과

- 조별 수업방법은 학생의 동기유발, 가르치는 재미와 깨우치는 기쁨을 제공하는 수업방법이라서 학습시간이 길어도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블럭타임제 및 교과교실제에 적합한 방법이다.
- 수업의 주도권을 교사가 아닌 학생에게 돌려주고 교사는 학습 자료와 정보제공, 개별화된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조장들은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설명할 때 고도의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다.
- 수업형태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해결력을 지도할 수 있다.
- 급우들을 가르치면서 학습개념을 확실히 알고 반복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조원끼리 갈등요소나 문제점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해 감으로써 창의적 인성을 기를 수 있고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지도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림책으로 쉽고 즐거운 국어시간 만들기



예 승 현

거제 장평초등학교 교사

학습도움반 친구들의 대부분은 국어와 수학 수업 시간에 학습도움반에 오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장애영역이나 학년 등 수준이 다양한데 그 중 국어 수업시간에는 글자를 알아가는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자를 알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림과 글자가 있는 그림책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1년 동안 그림책으로 쉽고 즐거운 국어 시간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1.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림책과 친해지기

매일 수업시간마다 그림책을 읽는데 한 장씩 서로 돌아가면서 읽었다. 학생들마다 글자를 읽는 능력이 다양하여서 그에 맞추어서 읽는 방법을 달리하였다. 글자를 알기는 하나 잘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니라 한 어절로 글을 읽게 하였고, 글자를 모르는 학생은 한 어절씩 먼저 읽어주고 따라 읽게 하였다. 처음에는 글자가 많지 않은 그림책을 선택하였고 다 읽는데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2주일 쯤 매일 읽으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그림책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답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림책의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그림책을 선택하였다.

2. 그림책 퍼즐로 그림책과 친해지기

그림책의 표지를 가지고 퍼즐을 만들어 두어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맞추어 보게 하였더니 보았던 그림책은 보았다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그림책 표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책을 읽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즐거워하였다.

그림책을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퍼즐을 맞추면서 그림에 더 집중하고 그림책을 친근하게 여기게 되었다.



3. 그림책의 대사로 역할극하기

「검과 아저씨의 뱃놀이」¹⁾ 「장바구니」²⁾ 등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이 있다. 이런 그림책에서 대사만을 가지고 대본을 만들고, 등장인물을 머리띠, 가면, 인형막대, 손가락 인형 등으로 준비해 두어 역할극 놀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역할극은 학생들이 모여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수업시간 후에는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점심시간에 만나서 해 보자고 학생들끼리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서로 하고 싶은 역할이 같아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지만 순서를 정해서 역할을 바꾸어 해 보기도 하고, 대사 읽을 순서를 서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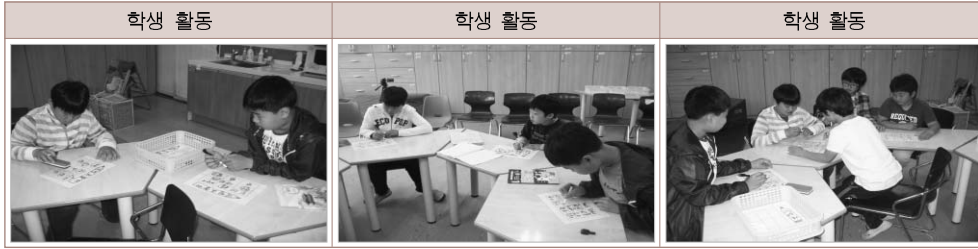
4. 끝말잇기와 빙고놀이

끝말잇기와 빙고놀이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두고 하고 싶을 때 지웠다 썼다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림책의 제목이나 나온 단어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빙고 놀이 규칙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나중에는 통합학급 학생들과도 같이 할 수 있었다.

간단한 동물 이름이나 숫자로 하는 빙고놀이는 통합학급 학생들도 점심시간에 와서 같이 할 정도로 재미있어 하였다. 통합학급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간단한 놀이이지만 어떤 빙고를 할지, 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어떤지 등의 놀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 볼 수 있었다.

1) 검과아저씨의 뱃놀이, 존 버닝햄 글·그림, 이주령 옮김, 시공주니어,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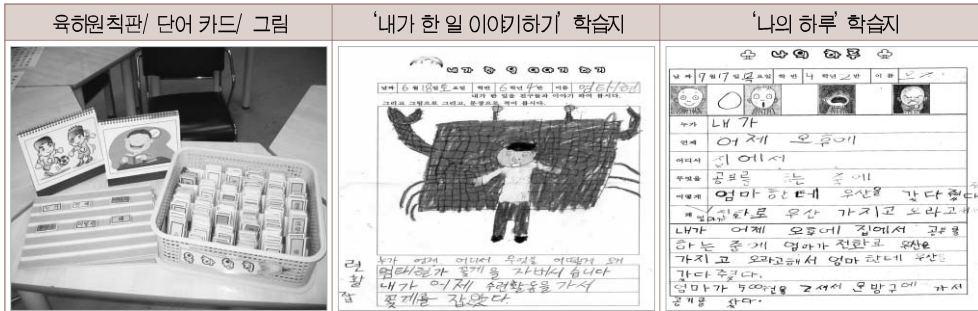
2) 장바구니, 존 버닝햄 글·그림, 김원석 옮김, 보림, 1996



5. 그림책을 활용한 쓰기 활동

그림책 속에는 많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육하원칙으로 말하기, 쓰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단어 카드를 만들어 육하원칙에 맞추어 단어카드로 문장 만들어 보기를 한 후에 그것을 종이에 써 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와 더불어 주말마다 있었던 일을 매주 월요일에 그려보고 써 보는 ‘내가 한 일 이야기하기’ 학습지, 방학 동안 하루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써보는 ‘나의 하루’ 학습지를 해 보았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질문에 단어로만 대답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였고, 이는 조사 사용이나 띄어쓰기 등에 효과적이었다.



처음에는 선택해 준 그림책만 읽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그림책을 선택해서 읽기도 하고 스스로 일기를 쓰는 학생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들을 통해서 글자를 읽고, 쓰기만 하는 국어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글자를 익히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기부 윈터 프로그램 참여 수기 공모전

1. 목적 및 방침

- 목적 : 교육기부 윈터(겨울방학) 프로그램 참여 분위기 조성 우수사례 홍보
- 방침 : 『E-나눔미』 수기 온라인 공모전, 우수작 교육감상 시상

2. 추진내용

- 대상 : 윈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
- 기간 : 2011. 12. 20. ~ 2012. 2. 3.
- 참여방법 및 추진일정

순	구분	내용
1	윈터 프로그램 참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별 윈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른 • 프로그램 운영 상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윈터 프로그램 참여 이외에도 추진기간 중 『E-나눔미』교육기부 매칭을 통해 참여한 경우도 인정함
2	공모전 참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프로그램 참여 시 수기작성을 위한 기록지, 사진 등을 준비하여야 함
3	공모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눔미』홈페이지 윈터 프로그램 수기 온라인 공모전 참여 신청 • 『E-나눔미』공모전 게시판에 수기 작성 및 사진 탑재(저장 후 확인바탕) 수기 작성 분량 : 제한 없음(단, 분량의 적정성은 심사에 적용)
4	수상작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눔미』게시판을 통해 수상작 공지 • 수상자 소속학교로 상장 발송(~ 2012. 2. 10.) • 참여 원고의 관리권한은 경남교육청에 있음

3. 시상계획

시상	구분	시상내용	비고
교육감상 (학생시상)	초등부	최우수(1), 우수(2), 장려(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편수에 따라 '장려' 수상작수 결정 • 심사기준에 따라 최우수 수상작을 미선정할 수 있음
	중등부	최우수(1), 우수(2), 장려(다수)	
	고등부	최우수(1), 우수(2), 장려(다수)	

4. E-나눔미

- 전국최초로 개통(2011.7.1.)된 교육기부 전문 매칭사이트
- 홈페이지 주소 : <http://enanumi.gne.go.kr>
- 주요메뉴 : 교육기부하기, 교육기부받기, 교육기부현황, (온라인)수기공모전 등

情·體·知로 꿈을 키우는 용원 늘품 교육



전 현 수
창원 용원중학교 교사

본교는 경력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교사, 학교 교육에 신뢰가 높은 학부모, 밝고 심성이 고운 학생들이 모여 활발하게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창원외곽의 외곽에 위치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키우고 가꾸어 줄 특색 과제의 운영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 여건과 경남 교육정책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키우고 가꿀 수 있는 특색 과제 운영을 위해 본교는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의 뜻을 지닌 순수 우리말인 ‘늘품’을 특색 과제에 적용시켜 ‘情·體·知로 꿈을 키우는 용원 늘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늘품 하나 - 노래로 정서를

고운소리 울리는 합창 경연대회, 예술 감성 높이는 문화예술체험,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오솔길 연주, 음악 감성 키우는 교내 음악방송, 음악 재능 살리는 방과후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교내에 울리는 음악소리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속에 스며들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른 심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합창경연대회



문화예술체험



오솔길 연주



학부모 교육기부

둘째, 늘품 둘 - 운동으로 건강을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1110 건강달리기, 1080 건강운동,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PAPS 저체력 학생 건강 체력 향상 프로그램, 평생 체육 기틀 마련을 위한 동아리 계발활동 운영으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1110 건강달리기



1080 건강 운동



스포츠클럽 운영



PAPS

셋째, 늘품 셋 - 책으로 지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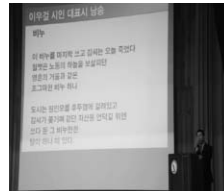
책과 함께 하는 환경 조성으로 학푸르미 명예사서 운영, 책 읽는 날 운영 및 수행평가 반영, 독서이해교육, 50권 책읽기 운동을 하였으며, 책과 하나 되는 용원세상을 주제로 책의 달인 찾기 독서퀴즈, 시인을 꿈꾸며, 책 속의 보물찾기, 책 속에서 만나는 나의 꿈 만들기, 나의 꿈을 엮어가는 당당독서기록장 쓰기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독서 습관 형성과 책 읽는 문화를 생활화하였습니다.



학푸르미 명예사서 운영



책 읽는 날 운영



독서 이해교육



다양한 독서 행사

꿈이 있는 학생들이 그 꿈을 키우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용원 늘품 교육은 노래로 고운 심성을 가꾸고, 운동으로 건강한 체력을 기르며, 책으로 지식을 쌓아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원 늘품 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교육기부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색과제 운영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된다면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학교, 공교육의 모델학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스스로 능력을 키워 봉사하는 사람

- 사·제·모가 함께 하는 무지개 봉사활동 -



오 창 호

김해봉황초등학교 교장



01



02



03

1. 봉사를 앞세우는 사람

본교는 교육목표(바라는 인간상)를 ‘스스로 능력을 키워 봉사하는 사람’으로 설정하고 교직원과 어린이들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표를 ‘봉사의 실천’에 두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봉사의 생활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학구 내에 영유아~19세 청소년 보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방주원’이 소재하고 있어, 봉사활동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으나 이를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상호 자매 결연을 맺고 유대를 강화해 왔으며, 2011년 3월부터는 ‘사-제-모가 함께 하는 무지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단, 학생은 해당 기관의 방침으로 또래 봉사활동은 접수하지 않아 학교 내의 활동에 한정하고 부원동 소재 ‘청솔요양병원’과 결연하여 활동하고 있음)

2. 사-제-모 동행의 봉사 실천

가. 교직원(師)이 먼저

2011년 3월 15일 교직원 29명이 방주원을 방문하여 학용품과 생필품 등 362,400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사랑으로 띄우는 무지개 공부방’ 협약식을 가졌다. ‘무지개 공부방’은 본 시설 소속 학생들의 공통의 문제인 기초학력부진을 해소하고자 12명의 교사가 주중(월~토) 2명 1조로 퇴근 후에 방문학습지도를 하는 봉사활동이다.

이 활동과 함께 2010학년도에 담임 중심의 ‘1교사-1방주원 학생 결연’으로 학교생활 중 상담과 보살핌을 실천해 왔으며, 20세가 되어 본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들의 자립기금 조성을 돕고자 현재 00명의 교직원이 매월 일정금액을 계좌자동이체로 후원하고 있다.

본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소외계층 어린이의 복지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만기 교수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에 참가시키고, 특히 4학년 육상 꿈나무 박성철(방주원 소속)의 꿈을 키워주고자 2011. 대구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관람을 주선하였다.

01 무지개 공부방 협약

02 영유아 돌봄

03 방문학습지도



〈이만기 교수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국체육상경기관람〉

나. 학생(弟)교육으로 연결

교육목표로 설정된 봉사활동 덕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편성시 각 교과에 봉사 실천 관련 지도 요소를 학년수준에 맞게 재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 중심으로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내면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 예로 봉황다솜나누미 봉사활동의 경우 학급 단위로 월 1회 학교주변 정화활동과 청솔요양병원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청솔요양병원 학생봉사는 병실 청소, 목욕 봉사, 노작품 선물, 학예 재롱 잔치 등 작은 나눔으로 노인들의 웃음을 선사하는 활동이다.

다. 학부모(母)의 동참

본교는 2011학년도에 경남교육청 선정 ‘학부모교육 지역중심 학교’로서 다양한 연수활동과 함께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이끌고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다.

그 중 ‘자원봉사 동아리’는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그룹으로 이들의 계획에 의해 월 1회(3주 화요일) 방주원 방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주원의 운영진과 진지하게 협의, 상담하여 할 일을 찾고, 도서와 학용품 75만원 상당 지원, 청소활동과 영유아 돌봄 등 진심어린 보살핌을 주고 있으며, 12월에는 김장 담그기 활동도 실시하였다.

(*활동 상황은 본교 홈페이지 열린마당/학부모게시판 참조)

3. 지금까지의 성과와 전망

우리 봉황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각자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찾아서 봉사하고 드러내지 않는 선행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봉사를 생활화하자는 ‘사-제-모 동행’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중간 결실이라고 본다. (*2011.경남교육청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우수교 기관표창)

삶의 진정한 가치를 무엇에 두느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할 일을 하여 재능을 익혀서 그 능력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정말 뜻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러한 가치와 실천력을 조기에 습관적으로 몸에 익혀나간다면 장차 이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목적을 봉사 실천력 배양에 둘 수 있는 교육관의 정착과 확산을 기대한다.

04



05



06



04 다솜나누미 결단식

05 청솔요양병원 봉사

06 현장 협의활동

자녀와 함께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강 대 종

고성 동해초등학교 교장



01

1. 들어가면서

본교는 전교생 37명 중 7명(18.9%)이 다문화가정자녀이다. 다른 학교에 비해 본교의 다문화가정은 중국 국적이 대부분이고, 학생들도 학교생활 적응과 언어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나 맞벌이 가정과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체험중심의 문화교육 기회가 부족한 형편이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역중심학교 운영을 위해 학기 초 실시한 다문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정에서 갖지 못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학교교육에서 운영해 주기를 원하였고, 그 대상은 다문화자녀와 일반학생의 구분보다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역중심학교 운영의 방향을 학부모와 함께하고,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구분 없이 문화적 자산을 넓힐 수 있는 체험중심의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문화이해, 일반학생은 도시 농촌 간의 문화차이 해소라는 잠재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탐방, 스포츠체험활동, 예술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02



03

2. 고성군 교사협의회를 구성하다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협의회 구성을 위해 고성군내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12분의 선생님들이 동해초등학교에 모여 다문화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회 가졌다. 이날 교사협의회에서는 다문화교육은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자산을 함께 향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3. 다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가. 엄마와 함께 만든 세계 여러 나라 요리

음식문화를 통해 문화적 편견 해소 및 타 문화에 대한 존중심 함양을 위해 고성군내 학생, 학부모 등 총 26명 6팀이 참가한 다문화요리대회가 개최되었고 요리

01, 02 엄마와 함께 만든 세계 여러 나라 요리

03 엄마, 아빠 손잡고 다녀온 통영문화탐방

는 필리핀의 피나벳, 일본의 야키소바, 터키의 케밥, 베트남 월남쌈 등으로 조리
가 끝난 후엔 서로가 만든 음식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나. 엄마, 아빠 손잡고 다녀온 통영문화탐방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고향이자 굵직한 국제행사와 충무공의 얼이
살아있는 통영에 학부모와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주요 활
동으로는 세병관, 총렬사 등 '이순신장군의 발자취를 찾아서' 와 통영 음식문화 체
험, 그리고 예술문화활동으로 전혁림미술관, 미륵산 케이블카 체험으로 자녀와
함께 한 활동이어서 문화활동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난 시간이었다.

다. 재능기부협약과 연계한 다문화이해교육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부 나눔의 교육정책에 따라 고성교육지원
청과 교육기부 협약을 맺은 기관을 방문 또는 초빙하여 학생들은 창의적체험활동
의 시간을 학부모는 소중한 연수의 기회로 삼았다.

- 1) 도예체험활동 - 고성군 구만면에 위치한 수로요 보천도예 학교에서 학부모
와 전교생이 참여한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활동을 실시하였다.
- 2) 모시꽃예술체험 - 모시로 만든 꽃 창시자 김정숙원장을 초빙하여 본교 학부모
12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연수회를 가졌다.

라. 다문화표현대회

고성군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표현대회를 실시하였다. 대회 종목은
다문화그림그리기, 여러나라 전통의상 및 음식소개, 나라신문만들기로 고성군내
10개의 학교에서 150여 편의 작품을 응모하였다.

마. 스포츠체험활동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 체육교과의 계절운동과 통합
연계하여 박태환 따라잡기란 주제로 고성실내수영장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스포츠문화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빙상체험도 이루어졌다.

3. 끝맺음

체험중심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는 우리 문화와 역사
를 바르게 이해하여 민족, 문화정체성을 길러주고 일반학생에게는 공존과 배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기회와 그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문화탐방, 도예
체험, 요리대회 등은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더욱더 빛
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었다.



04 모시꽃예술체험
05, 06 다문화표현대회 작품



김 팔 룡
함양초등학교 교장

21세기는 문화시대 -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01

1. 들어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문화가 세계의 흐름과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즘 우리사회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점진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함양초등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문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세월이 바뀌어도, 학교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활동으로 '조상의 멋과 지혜를 배우는 전통문화계승 교육'을 설정하고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다양한 전통문화 계승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2

2. 전통문화계승교육의 실제

가. 멋과 지혜를 배우는 '한복입는 날' 운영

전통 의복인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 이후 현재까지 '한복 입는 날'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옷, 한복'이라는 주제로 의생활 이해, 전통문화교육, 예절교육, 민속놀이 등 주제통합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회적인 또는 한 학년에 제한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학년의 발달 단계와 흥미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차별화된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간 12시간 이상의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복입는 날'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 모두가 인정하는 함양초등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학부모의 교육활동 만족도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나. 효를 실천하는 '효행 체험 주간' 운영

우리 민족의 가족사랑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실천의 장을 제공하고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태도를 정착시켜 함양의 선비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효행 체험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과 연계하여



03

- 01 한복 입는 날 운영
- 02 민속놀이 경연 대회
- 03 효제학습장

효행체험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효도 전화하기, 부모님 돕기, 효도일기 쓰기 등의 다양한 효행을 체험하고 그 결과를 효행체험주간 보고서 및 효제학습장 '실천하면 행복해요'에 기록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리산 은혜의 집'과 자매 결연을 맺고 연 4회 이상 학생들이 방문하여 위문 공연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 함께 해서 즐거운 전통문화체험교육 실시

우리 고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문화재에 담겨 있는 조상의 얼과 슬기를 배우기 위해 '우리 고장의 문화 바로알기' 현장체험 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고장에 있는 역사 인물 공원, 선비문화탐방로, 함양 예술촌 등과 같은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체험 활동으로 나무 솥대 만들기, 오색 송편 및 인절미 만들기, 전통 염색 체험하기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전통 장류 및 음료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전통 음식의 우수성 인식할 수 있도록 전통식생활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전통 문화 공연을 학교 내에 유치하여 학생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통문화 현장체험학습〉 〈전통식생활 동아리〉 〈국악한미당 '휴' 공연〉 〈국악의성지 현장체험학습〉

라. 흥을 느끼는 전통 예술 동아리 운영

전통 예술 동아리 활동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학교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전통 문화 관련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야금부와 풍물부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전통예술동아리활동은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장의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발표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 동아리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3. 나오며

함양초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전통문화계승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전통 문화계승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증가로 이어져 공교육의 신뢰 회복 및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교 100주년의 오랜 역사 속에 펼쳐지는 전통문화계승 교육을 통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을 살려 보다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04



05



06



04 명절을 이웃과 함께

05 은혜의 집 봉사활동

06 풍물부

1·2학년 복식학급 한 해를 마치고



김 언 희

남해 고현초등학교 교사

고현초 1학년 1반과 2학년 1반은 두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며 담임선생님도 한 명인 복식학급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를 그냥 선생님이 아닌 '1학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2학년 학생들도 1학년 때 제가 담임을 해서인지 항상 1학년 선생님입니다.

우리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복식학급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꺼리고, 복식학급을 맡은 저에게도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에 1학년 담임도 맡았고, 본교 교사 중 경력도 있고 하여 2학년 교육과정만 연구하면 될 것 같아 자진해서 복식학급 담임을 맡았습니다. 복식학급 구성은 1학년은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1명이고, 2학년은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입니다. 하지만 1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 성비, 흥미, 관심분야 등 모든 면에서 달라 첫 시작부터 학급경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올해 복식 학급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한 것은 첫째, 효도입니다. 공부의 기본은 효도입니다. 내 몸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부모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학생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인성지도입니다. 매주 월요일 첫째 시간은 주말에 지낸 일을 서로 이야기 하고 듣습니다. 또, 먹을 것이 있으면 7명이 나눠 먹고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1·2학년들은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셋째, 독서지도입니다.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알림장에 책 제목을 적어옵니다. 책읽기 보다 더 나은 공부는 없습니다. 책읽기를 실천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1·2학년들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넷째, 일기쓰기입니다. 학생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이 읽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 느낀 일들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표현해야 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지속적인 일기 쓰기를 통해서 이제 소중한 자기의 삶을 기록할 줄 압니다. 다섯째, 우리 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반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에 입학할 고현초등학교 유치원생들도 1학년 교실에서 형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
다고 합니다.

복식학급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첫째, 학생 생활지도입니다. 한 반이지만
두 학년으로 구성되어 발달단계도 달라 모든 면에서 두 분야로 지도해야 했습니다.
3월 달 내내 같은 유치원을 나온 2학년 학생 1명과 1학년 학생 2명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1학년이 2학년을 동급으로 보려했기 때문이지요. 같은 형제가 한 반
에 있어 지도가 난처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여학생의 수가 학년별로 1명뿐이라
활동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둘째, 학습지도입니다. 시간표를 1학년, 2학년 동
일하게 짜서 같은 과목을 수업합니다. 1시간이 40분 수업이라 20분씩 수업을 해야
합니다. 실제 수업은 두 학년을 수업단계마다, 학생들이 궁금해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며 진행 했습니다. 학생 지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학급업무과중입니다.
두 학년의 업무를 다 하다 보니 무엇이든 2개씩 합니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첫째, 학생 생활지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생으로
서 1년을 보낸 2학년 학생은 형으로서 1학년 동생들을 이끌고 다독여주었고 1학년
학생들도 2학년 학생들을 선배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5명의 남학생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축구도, 잡기놀이도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서로 친구가 됩니다.
1학년과 2학년 여학생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지도입니다. 두 학년을 가르친다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학습활동을 매
시간 마다 두 번씩 해야 합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선생님 다 했어요, 이제 뭐해요?”
라며 자꾸 불러 다른 학년 수업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기다릴 줄 압니다.
선생님이 다른 학년 공부가 마치면 우리 공부 가르쳐주러 온다는 걸 압니다. 또,
동학년끼리 같이 공부하며 2학년이 1학년을 가르쳐 줍니다. 모자란 공부가 있으면
보육교실에서 공부하며 1학년 중 똑똑한 친구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도 되었
습니다. 셋째, 학급업무과중입니다. 무엇이든 2개씩 학급업무를 해야 했으므로 일과
중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급업무를 집에서도 처리해야 했지만
아이들을 위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해 복식학급을 운영하면서 고현 삼락을 이뤘습니다. 일락은 학생이 배우고
익혀서 기쁜 것이고, 이락은 친구와 선배와 같이 해서 기쁜 것이고, 삼락은 학부모님
들이 고현초등학교에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음을 돈독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1·2학년 복식 학급 담임을 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꿈을 키우는 BEST 위림교육



김 양 희
함양 위림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본교는 대관림(大館林 : 최치원선생이 조성한 숲)과 위천(渭川: 최치원선생이 함양읍의 외곽으로 물길을 돌려낸 인공천)이 가까이 있어 자연을 벗 삼아 학교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는 천혜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읍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로 인해 통폐합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자연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심성이 착한 학생으로 자라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본교만의 명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폐합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본교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체험 및 실천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여 다양한 학교 행사를 연계 실시하고, 소외 계층이 많은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인간의 지·덕·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및 성숙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낸 교육활동을 통해 통폐합의 논란을 불식시키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는 위림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더불어 행복한 우리' 운영

가. 사랑의 손잡기, 渭林家족의 날 운영

본교 학생들의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오는 가족 사랑의 결핍과 정서적 빈곤을 채워주기 위해 지역 사회의 어른들과의 조손결연을 맺는 사랑의 손잡기 및 행사를 통해 전통 교육방식인 격대(隔代)교육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웃어른의 사랑과 가르침을 배우며, 함양의 선비정신을 본받아 경로효친과



창의·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분기별로 1회 토요일 2~3시간의 시간을 계획하여 만남의 날, 발견의 날, 화합의 날, 축제의 날로 4회에 걸쳐 진행

하였다. 특히, 발견의 날 행사에서는 상림주변의 역사알기를 통해 어른들에게서 직접 옛날 생활이나 함양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여 고장의 문화유산에 관한 공부도 함께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화합의 날에는 민속놀이의 경연을 통해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나. Happy Birthday 운영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살려 매월 첫째 토요일 4교시에 그 달에 생일을 맞은 학생들의 생일을 전교생이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Happy birthday'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사로서 친구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먹고, 남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편지를 낭독하고, 다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자기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기 존중감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사이좋게 지내는 선후배의 문화형성과 위림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출생에 대해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줌으로써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다. 다문화 이해 교육 (더불어 어울림으로)

다문화 지역중심학교로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세계의 생활 문화를 익히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학년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각국의 전통의상을 접어보거나, 국기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다양한 국가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고, 각국의 전통놀이



나 의상을 체험해보는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학예회에서는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람들 앞에서 직접 시연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체험 행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꿈을 키우는 공부방 운영

가. 해질녘 공부방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월, 화, 목요일 4시 40분부터 6시까지 집에서 돌봐주기 힘든 학생 또는 특별 보충학습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여 국어·영어·수학과목을 중심으로 1대1 대면 학습지도를 실시하였다. 공부방은 전액무료로 이루어졌으며, 교재·간식·차량 제공에 관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책임졌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고, 학교로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실제로 공부방을 시작하기 전에 비해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됨으로써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보충을 실시하지 않는 다른 과목도 함께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방과 후 시간에 담임교사와 공부를 함으로써 아동과 교사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상담시간을 가지게 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4. 맺으며

그동안 본교는 다른 면소재지나 읍소재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활동 운영에 제약을 많이 받아왔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유지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본교만의 특색을 지닌 하나의 명품교육을 실현할 수 있었다. 특히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창의·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성과들은 탄실한 밑거름이 되어 학교를 생기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인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더욱 발전해가는 'BEST 위립교육'을 통해 통폐합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수요자 중심 · 참여형 연수 실현, ‘초등1급정교사자격연수’



박 봉 현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은 2011년 전국교육연수원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기능 개편 후 연수대상자 선발 및 연수이수처리 업무의 전적이관으로 위상이 제고되었으나, 재정립되지 않은 업무체계와 업무량의 증가로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연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교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제고로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교사 역할에 부응하는 연수 운영을 위해 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연수열기를 내뿜는다.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는 우리 연수원 연수과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계연수, 찾아가는 연수, 명사특강, 청강제 운영, 토요일무연수, 스마트교육 등 그 사례가 다양하다. 그 중 수요자중심 · 참여형 연수실현으로 수업전문성 신장 및 연수방법 변혁의 중심에 선 초등1급정교사자격연수과정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변화에 대처하는 연수방향 정립

초등1급정교사자격연수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초등2급정교사를 대상으로 180시간 이상 실시되며, 연수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고 동료교사들에게 배우는 교사로서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시기로 교직 생애 가장 중요한 연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연수원에서는 초등1급정교사자격연수가 교사로서의 교양 및 바른 교직관 함양, 변화하는 교육 환경의 이해와 전문능력 신장을 바탕으로 중견교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육동향을 반영하고, 교과별 교수 · 학습 방법 개선으로 수업전문성을 신장하며, 참여식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방법의 다양화를 실천하여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수요자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수요자 중심 · 참여형 연수운영을 연수의 방향으로 정립하였다.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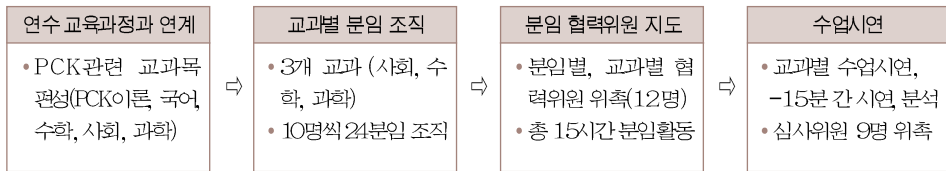
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품격 높고 부담은 줄인 수

요자 중심 연수아말로 자발적 참여 연수를 가능하게 하므로 본 연수원에서는
 첫째, 전기 연수과정의 설문조사결과 요구사항 반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둘째, 자격연수생 선발 후 설문지를 통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셋째, 과정자문위원회에 연수대상자를 필수 참여케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교과목 수의 조정, 실기실습위주 교과목의 시수 증대, 그리고
 각 교과 PCK기법 적용 수업, 탐구 및 체험활동, 분임활동을 통한 토의·토론 등의 다양
 한 연수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전 과정 교수·학습활동비를 전액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만
 족도 높은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초등수업전문가로 거듭나기, 분임활동

초등1급정교사자격연수 과정 중에서도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임활동은 PCK중심
 의 교실수업 연구로써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연구결과를 직접 실행에 옮겨 교육성
 과를 도출해 내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정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속에 PCK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새로운 수업이론을
 탐색하고, 특히 10명씩 소규모 분임을 조직하여 토의·토론 능력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팀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였
 다. 그리고 협력위원들의 지도와 수업시연 및 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처하는 수업기술을
 나누고 배우는 실질적 수업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되었다.

182시간의 긴 자격연수를 통해 한 가지라도 더 얻고 배우기 위해 방과 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느라 노력한 연수생들임을 잘 알기에 교단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행복을 듬뿍
 안기는 초등수업전문가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교육연수선진화방안 발표에 따
 른 연수방향의 변화가 필요한 이 때 교육계에서도 교육연수원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할
 때라고 감히 말해본다.

현장 교사 지원을 위한 수업컨설팅 직무연수 실시



곽 경 희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연수를 개설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컨설팅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연수과정으로는 교수·학습과정안 클리닉 및 수업의 뼈대 세우기와 내용교수법(PCK) 수업컨설팅을 구성하여 실시했는데 이 연수에 따른 연수 개요와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1.12.27(화) ~ 12.28(수)(2일간) 15시간
- 연수장소 : 덕정초등학교 시청각실
- 연수인원 : 초등교사 110명
- 연수일정 및 내용

일자	연수시간	연수내용	연수방법	시량
12.27 (화)	09:00~16:30	▶ 교수학습과정안 클리닉 ▶ 수업의 뼈대 세우기 ▶ 수업의 맥락 이해	강의	7시간
12.28 (수)	09:00~11:50	국어과 PCK 수업컨설팅	강의	3시간
	13:00~15:30	수학과 PCK 수업컨설팅	강의	3시간
	15:40~17:30	통합교과 PCK 수업컨설팅	강의	2시간

2. 연수 내용

가. 교수학습과정안 클리닉 및 수업 뼈대 세우기

수업의 뼈대를 학습목표, 학습자실태분석, 형성평가, 평가기준으로 4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수업의 뼈대를 중심으로 기 만들어진 여러 개의 교수·학습과정안을 살펴보면서 클리닉을 해 주어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업의 뼈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습목표에 포함된 '성취기준'
- ② 학습목표의 성취기준 설정 근거는 '학습지실태분석'
- ③ 학습목표의 성취기준을 재는 도구는 '형성평가'
- ④ 학습목표의 성취기준은 '평가기준'의 기본 수준

나. 내용교수법(PCK) 연수

내용교수법(PCK)의 전반적인 이해 및 국어, 수학,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 내용교수법 연수를 실시했는데 내용교수법(PCK)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CK의 개념을 살펴보면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공식화 하는 방법'을 말하며 내용교수지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PCK란 교과와 특정 내용을 특정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사 고유의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교과 내용 고유의 교수법(content-specific pedagogy)'이라고도 한다. 내용 교수 지식의 예로 '가장 유용한 형태의 내용 제시 방식, 가장 강력한 비유, 묘사, 사례, 설명, 시범'을 들 수 있다.

PCK 구성요소는 크게 표현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내용에 관한 지식, 교수법 지식, 평가지식으로 구분되며, 교사들이 6가지 PCK 요소를 제대로 알고 수업에서 실천한다면 보여주는 수업에서 실제적인 수업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주는 지식으로, 내용과 방법의 상호균형, 무임승차수업에서 다 함께 참여하는 수업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연수를 마치고

학교 현장 교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업전문성 신장 연수라 연수생들이 연수를 받는 동안 강의실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연수 첫째 날 연수 강사님이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이 너무 진지하고 열정적이라 이런 강의를 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다, 김해교육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연수를 받은 교사들도 교수·학습과정안 클리닉과 PCK 수업컨설팅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수업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앞으로도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 교사들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파악하여 적극적인 교사 지원을 해나가 고자 한다.



배움의 공동체 직무연수



강 순 옥
양산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실 현장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정성스레 이끌고자 하는 것도, 아이들의 특기 적성을 발굴하여 함께 즐겁게 특기 신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도하고자 하는 것도, 소외된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듬뿍 안겨주고자 하는 소망도, 학생과의 관계뿐 아니라 학부모와 직장 동료간의 인간관계와 학생지도와는 다른 여러 업무들도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할 일들이 아닌가 싶다.

이번 배움의 공동체연수를 통하여 ‘교사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교육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다.

학교는 모든 아이들의 배움 권리와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는가?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의 권리와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고 있으며 공공 공간으로 열려있는가? 학교는 그 자체가 민주적인 원리로 조직된 사회인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를 추구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학교 바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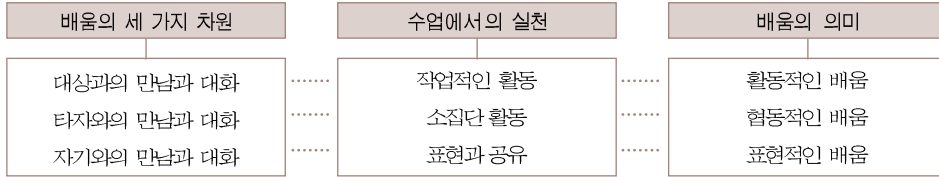
교실에서의 개인적인 배움을 공동체적인 배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모든 교사가 교실을 열고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서로 비평하여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활동에 참가하고 자신도 성장하는 학교를 건설해야 한다. 학교의 자율화로 학교조직의 구조와 교육행정과의 관계를 민주화하여야 한다. 학교를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전문가인 교사조직으로 재조직하여야 한다. 교사들이 서로가 서로의 수업을 비평하는 수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교내연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만남과 대화를 특징으로 하는 배움

학생이 사물이나 사람을 매개로 한 활동을 통해서 의미와 관계를 구성하는 배움은 학생의 도구적 사고나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한다. 즉, 교사나 친구의 도움으로 도달 가능한 배움의 수준이 매개된 활동에 의한 내화를 거쳐 혼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배움의 가능성을 이 수준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접 발달영역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화적 실천으로서의 배움



배움이 있는 수업 만들기 : 수업디자인/수업실천/성찰과 반성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단원의 내용과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수업을 디자인한다. 아이들과 수업시간에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주제를 정한다. 의미있는 주제를 풍부한 탐구와 표현의 과정으로 조직한다. 주제-탐구-표현을 한단위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교실에서의 실천 단계에서 아이들의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볼 때 수업과정에서의 교사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개인에 대한 대응이다. 아이들의 관심과 능력이 다양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움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활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이미지의 차이가 존중되고 풍부하게 교류되게 하는 일이다.

뛰어난 교사는 수업의 실패 원인을 아이들이나 교과서의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천과 그 디자인에서 찾고 교사 자신이 그 책임을 받아들인다.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교사는 아이들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교사는 수업과 교재, 학습자, 지식, 배움, 교실과 사회,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연결 지어야 한다. 학습과제가 어려울 때는 그 전단계로 되돌아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다. 즉, 교사는 경청하기, 연결 짓기, 되돌리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추위야 물러가라. 우리는 동영상 공부하러 간다!



최재영
사천 수양초등학교 교사

1. 우리가 연수를 하는 이유는

사실 ICT활용 교육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으나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기술을 익혀야 하므로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 그래도 ICT를 활용한 수업이 현장에서 꼭 필요하며, ICT 활용 수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에 접근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주어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언제든지 이용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점들은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장군을 이겨내며 연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방학중 연수 내용은

현재 삼넛은 36명의 초·중등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기 중에는 매월 2, 4주 월요일에 수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 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연수를 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장소를 사천교육청 영재원으로 옮겨 매주 2회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중 화요일은 모여서 직접 가르치고 익히는 실습 위주로, 목요일에는 실시간 화상 연수나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한 원격 재택 연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넛의 2011년 동계 연수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삼넷 동계 UCC 동영상자료제작과정 세부 운영 계획

■ 연수 방향

-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영상자료제작에 필요한 기획, 촬영, 편집, 활용 등의 실제 기능 교육

■ 연수 개요

연수대상	계획 인원	연수 기간	연수시간	연수 장소
초·중등 교원	40명	2012.01.04 ~ 1.30(월, 목)	60시간	사천영재교육원 외

■ 주요 내용

영역	교육 내용	
이론	- 동영상 제작과정의 이해 - 파워디렉터 구성 및 기본 메뉴 익히기	- 영상 촬영 이론 및 콘티 작성 - 동영상 기획 실습
촬영 편집	- 콘티에 따른 촬영 실습 • 좋은 영상을 위한 촬영법 • 편집을 고려한 촬영법 • 소리를 고려한 촬영법	- 영상 편집하기 - 파워디렉터 고급 기술 활용 - 사진과 동영상 합성하기 - 스마트폰으로 영상 출력하기
작품 제작	- 개별 영상 제작하기 • 기획, 촬영, 편집, 파일관리, 웹상에 올리기	- 작품 발표 및 토의하기

방학 중 효율적인 연수를 위하여 연수 장소를 사천영재교육원으로 옮겼으며 연수 횟수도 주 2회로 늘렸다. 연수내용은 학기 중 삼넷 회원들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UCC 동영상으로 정하였다. 연수의 진행은 학기 중 스터디 방식으로 먼저 연수한 회원 4명이 강사가 되어 팀티칭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실시하였다. 배우기 위해 학생들처럼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열정적이고 인상적이었다. 학교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못한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각 주별 연수 내용을 웹하드에 공유하였다.

3. 앞으로 삼넷은

컴퓨터의 활용이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교사의 ICT 활용 수준이 수업의 질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ICT의 효과를 수업 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업 환경의 직접적인 매개체는 교사이다. 우리 삼넷 회원들은 오늘도 새로운 정보를 찾아 여기 저기서 책을 넘기며, 여러 사이트에서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삼넷은 늘 준비하고 변화 앞에서 당당한 선생님의 자세로 새로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교육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UCC 제작 동영상화면들〉

〈삼넷 연수 장면〉

페이스북의 특성과 활용법 2

- 페이스북 활용하기 -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교육원 원장

1. 페이스북 홈화면 구조

페이스북 홈화면구조에서 핵심은 창 왼쪽에 위치한 메뉴들이다. 창 왼쪽에 위치한 메뉴들을 크게 구분하면 '즐겨찾기, 연결, 앱, 리스트'로 구분지어 보여준다.



2. 즐겨찾기 메뉴 탐색

페이스북 메뉴 중에 자주 찾는 것들을 모아둔 메뉴위치로 기본은 시작하기, 뉴스피드, 메시지, 이벤트, 친구 찾기로 되어있다.

가. 시작하기

가입 시 건너뛰기할 것들을 채워가며 관계 맺기를 도와주는 메뉴로써 어느정도 친구를 맺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메뉴다. 가입시 가입되어지지 않은 친구초대기능을 이용해 메일로 초대를 보낸 경우 해당 메일 사용자가 가입 시 친구요청이 온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나. 뉴스피드

뉴스피드 메뉴를 통해서 는 나와 연결되어진 친구들의 글이나 사진등의 콘텐츠 등이 올라와서 내게 보여지는 곳이다.



다. 메시지

마치 이메일처럼 페이스북 친구 중에 자신이 선택한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기능으로 공개되어진 뉴스피드가 아닌 해당친구에게 선택되어져 보내지는 글들이 보여지는 장소다. '메시지검색하기' 라는 검색창을 통해 제목 등으로 지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라. 이벤트

이벤트 메뉴에서는 친구가 올려놓은 행사등의 이벤트나 자신이 만든 이벤트 등의 이벤트 관련 콘텐츠를 보고 생성할 수 있는 장소이다.



마. 친구찾기

친구 찾기 메뉴는 가입시 메일기반의 친구찾기로서 친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메뉴다.



바. 즐겨찾기 추가

기본 즐겨찾기는 위와 같이 되어있지만 사용자의 개인적 성향에 맞춰 원하는 추가 메뉴를 즐겨찾기로 옮겨 놓을 수도 있다. 즐겨찾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메뉴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연필모양의 아이콘이 보여지는데 이아이콘을 클릭하면 '즐겨찾기 추가' 라는 글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메뉴가 즐겨찾기에 추가되어 보여진다.



경주 남산을 오르며



공 현 철

하동고등학교 수학과 교사



남산입구 삼릉



선각마애육존불



칠불암

매년 경주 남산을 오른다.
2011년은 남산을 오르지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새해 첫 주말 집사람과 함께 경주 남산을 찾았다.

마음이 무거울 때면 나는 경주로 갔다.

처음 경주를 간 것은 고2 여름방학쯤이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의 흔들림과 대입준비에 지친 나는 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경주로 갔다.

토함산을 힘들게 올라 바라본 석굴암 부처님의 인자하신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저녁 어스름이 내린 후 불국사에서 버스를 타고 불빛이 가득한 시내에서 내렸다.

그런데 알고보니 내린 곳이 경주 시내가 아니라 모문호 주변의 호텔단지였다. 여름철 가로등 불빛을 보고 날아온 풀벌레들의 날개짓 또한 잊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대학 4학년은 새벽 버스에서 시작해 막차 버스로 하루가 지나갔다. 임용고시 준비로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보냈다. 다행히 임용고시에 합격했고 울산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주는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대왕암 주변의 해변을 거닐며 바라보는 동해는 푸르고 넓고 깊었다.

울산에서의 교직생활을 접고 지리산 자락의 함양으로 왔을 때는 PC 통신 전성기였다.

현재가 스마트폰 시대라고 한다면 90년대 중반은 PC통신의 시대였다.

PC통신 천리안의 동아리인 '우리일 문화유산답사회'는 시들은 영혼 같은 나에게 따뜻한 감성을 살려주었고, 그 문화유산의 중심에는 경주가 있었다.

차는 오름을 거쳐 우회전해서 천년신라의 마지막 포석정을 지나간다. 집사탐과 시작하는 경주 남산 산행은 언제나처럼 삼릉에서 시작한다. 삼릉 주변의 푸르고 굽은 소나무는 역사의 산고를 상징하는 것일까?

유홍준 교수님과 1박 2일팀이 다녀간 뒤로 경주 남산은 등산객들로 붐빈다. 선각여래 육존불 주변에서는 멀리 서울에서 내려온 가족들이 이승기가 여기에 있었다며 사진을 찍고 있다. 용장사터 주변에서는 창원에서 왔다는 고등학생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칠불암에서는 대구에서 왔다는 불교청년회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상선암 마애대불을 지나 왼쪽으로 틀어 한 번도 안 가 본 바둑바위로 향했다. 경주시 내가 한 눈에 들어온다.

멀리 태종무열왕릉이 있는 서악산 고분군이 보이고 오름과 대릉원, 반원성이 보인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아는 남산은 이렇게 알기만 하다.

용장사터 삼층석탑 옆에서 충무김밥을 꺼내어 허기를 달랜다. 용장사 삼층석탑 옆에서 먹는 김밥은 감회가 새롭고 더욱 맛있다.

외국인 커플들도 눈에 자주 띈다. 한국을 느끼기 위함이라. 이곳 용장사터는 김시습이 20대에 7년간 머무르며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쓴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산행에서 나의 기쁨은 충담스님이 매년 3월 3일 삼화령 부처님께 차를 올렸다는 그 곳을 찾았다는 것이다.

매년 그 곳을 찾고 싶었지만 지나치기만 했었다.

삼화령 부처님은 지금은 없지만 그 부처님이 계셨던 연화대좌는 큰 바위위에 남아 있다. 연화대좌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겹겹이 산이고 바로 선경이다.

경주남산연구회는 연화대좌 바로 앞(생의사터)에 차나무를 심어 충담스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삼화령 얘기부처도 떠올리며 기쁜 마음으로 삼화령을 넘어간다.

칠불암을 향해 가면서 바라보는 하늘은 정말 푸른 하늘색이다.

남산 트래킹을 하는 두 비구니스님께 합장하고 멀리 용장사지 삼층석탑을 바라본다. 신선암이다.

멀리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은 토함산이 보이고 토함산 너머 동해바다다.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은 오른쪽으로 푸른 하늘과 같이 바라보아야 제 맛이다. 1박 2일 탐들이 이곳에 와서 모두들 낭떠러지에 놀라고 푸른 하늘과 한껏 어울리는 마애보살상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늘이 푸르고 내 마음도 푸르다.

신선암을 내려오면 남산의 국보 칠불암이 이어진다.

칠불암 앞에 서서 삼배를 올리며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칠불암 비구니스님의 맑은 눈과 밝은 미소가 심금을 울린다.

산을 내려오며 어린 딸 셋과 엄마가 하늘을 떼지어 날고 있는 철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들이 왜 저렇게 많이 날아가고 있을까?”

“아 엄마, 새들이 놀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하늘에는 수많은 새떼들이 하늘을 배회하며 해 저무는 겨울하늘을 수놓고 있다.

염불사터 삼층석탑을 둘러보며 오늘의 남산 등산을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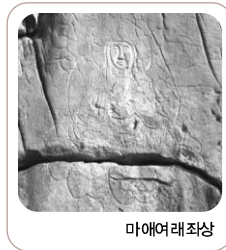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

다시 남산을 찾으리라.

보리사 돌부처님을 만나러.....



목없는 부처님



마애여래좌상



성산암 마애대불



용장사지 삼층석탑



용장사지 원형탑



염불사지 삼층석탑



용장사터 마애여래불



태극 너울



김 동 섭

거창 북상초등학교 교감

하늘 향해 선 깃발 하나
바람이 스치는 길
막아서고 열어주는
숨 가쁜 몸짓과 몸짓 사이

금실 헛살 너울대는 선율라고
사과는 박수치고
태극이 노래하며
창문가 스크린커튼에 춤추는 너는

차디찬 바람의 숨결서린 영
햇빛의 열기피어 오르는 혼
교차하는 두 눈 빛 그림자
흑룡라고 오르는 국운 헝가래



2011. 장애학생 가족참여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



주 석 돌

창원천광학교 고1 박지황 어머니

학교에서 지황이와 미국으로 해외체험 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나 기대되고, 또 한편으로는 먼 미국까지 갈려니 걱정도 되었다. 왜냐하면 전국 8개 대표지역에서 지역대표로 한 팀만 가는 것이라 과연 대표로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다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다른 지역대표들보다 일찍 서둘렀는데도 우리 팀이 가장 꼴찌로 도착했다. 처음으로 지황이 동생과 누나를 두고 지황이와 단 둘이서 연수를, 그것도 해외로 가려니 설레이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이 생겨났다.

무려 1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L.A공항에 도착하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시는 인상이 너무나 인자하신 남상석 교수님께서 반갑게 환영해주셨다. 함께 연수 온 학생들과 학생의 부모님들도 친근하고 재밌는 분들이셨다. 걱정과 달리 지황이도 또래 아이들과 어색함 없이 서로 마음의 이야기와 연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녁마다 모여 함께 나누었다.

미국 연수의 첫 하루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캠프 첫 체험 활동인 승마와 암벽타기, 매듭공예활동을 했다. 아이들 모두 즐거워하였다. 그 중에서 지황이가 하기 힘든 재활운동인 암벽타기 순간에는 많이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간 지황이가 너무 대견스러웠다.

두 번째 체험인 수영활동은 물에 뜨는 보조도구(긴 막대 스티로폼) 하나만 이용해 혼자 물에 뜨는 활동인데 지황이가 스스로 물에 뜨니 신기했다.

아이들의 캠프활동 후 저녁시간에는 두 번의 강의를 들었다. 미국에서의 체육수업을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에는 지황이가 처음으로 해보는 골프, 볼링 등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아 너무 흥미로워했다. 그리고 또 한 강의는 '장애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기' 라는 주제였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다. 학생 모두가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스타가 되어 사진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이 분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꾸준한 다리 근력운동을 통해 목발을 집게 되고, 또 후에 한쪽 목발만을 이용해 걸어다니고 계셨다. 지금은 미국 일반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며, 학교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았다. 강의 마지막에는 준비해 오신 마이클 잭슨 춤도 보여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웠다. 지황이도 강의를 듣고 나에게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돕는 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에버랜드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컸다. 지황이와 아이들은 한국에서는 놀이기구를 탈 기회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난생 처음 놀이기구를 타며 아주 많이 재밌어하며 행복해했다. 지황이가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니 미국인들이 먼저 타라며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줄을 양보해 준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장애인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 장애인을 배려하며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이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고 복지제도와 장애인 관련 시설(특히 성인 장애인을 위한) 좀 더 좋아졌으면 한다.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 준 이번 체험연수는 나에게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이었고, 행복한 추억이 되었다.



시루봉 등산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임도경

창원 자은초등학교 2학년 2반

시루봉 등산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나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동생 서연이와 함께 시루봉을 오른다.

시루봉은 우리 학교의 자랑인 산이다.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실력을 갖고 뒹아야 한다. 그만큼 오르기 힘들긴 하지만 오르는 동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산이다.

시루봉 입구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교 운동장 참빛관 뒤쪽이다. 그곳으로 가면 화장실도 옆에 있다. 둘째는 자은문구 건너편 바로 옆쪽으로 난 길이다.

계속 등산로를 오르다 보면 자은쉼터 앞의 '양심의 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름도 그렇듯이 이 문을 지나면 산이랑 약속을 한 셈이다. 또, 자신의 힘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된다.

그 곳을 지나면, 엄청난 계단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경험한 대로 58걸음쯤 걸으면 벚꽃 쉼터가 나온다. 거기서 꽃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다. 예쁜 꽃들과 여러 가지 식물들의 이름도 알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도 즐길 수 있다.

그 다음 등산로를 따라 쭉 걸으면 약수터가 나온다. 그 다음은 야생 동물 쉼터를 거쳐 편백 쉼터다. 편백 쉼터에서 좀 쉬고 걸다 보면 해군 쉼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동네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시루봉에 올라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길 바란다. 아름다운 새 소리와 함께.....

시루봉 등산은 나를 즐겁게 한다. 덕분에 나도 이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명 : In to the sky



신 광 수

- 한진동초등학교 근무 교사
- 불꽃낙화 사진 촬영대회 은상
- 대한민국공중생태체 함전 사진전 참가
- 2006, 서울 코엑스 제1 회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사진공모전 참가
- 제 어린이 디카교실 일공육사, 2008

고입 전형방법 개선

이러서 필요합니다

고입 전형방법 개선은 필요합니다



필요성

-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 면학 분위기 조성
 - 학습결손 예방과 교실수업 개선
 -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학력향상에 대한 도민의 지속적인 요구**
 -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성적
(학업성취도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 고입 전형방법 개선 요구 고조 (연구용역 결과 68.2% 개선 찬성)
- **선발시험을 통한 보충 기회 부여**
 - 내신성적 낮은 학생 => 만회 기회 제공
- **인성함양 및 생활지도 내실화**
 - 중학교 3학년 2학기말 안정된 교실 분위기 조성
 - 기초·기본이 준비된 자신감있는 고등학교 출발 기반 마련

고입 전형방법 개선은 과거 연합고사 부활이 아닙니다

과거 연합고사

- 연합고사만으로 고입전형 실시
- 문제풀이 위주 수업 등 교육과정 파행 운영
- 방과후 보충수업 및 야간학습 실시
- 고교 서열화로 위화감 조성
-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 지나친 경쟁으로 창의·인성교육 약화

고입 전형방법 개선안

- 내신성적+선발시험으로 고입전형 실시
- 중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
- 교수·학습 방법 개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 선발기능의 약화로 과잉경쟁 불필요
- 비교과 영역의 내신 반영으로 인성교육 강화
- 사교육비 증가 부담 완화
(사교육비 주요 유발요인은 내신성적 관리로 인함)

고입 전형방법 개선(안) 이릅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일반고, 자공고 적용

선발시험 7개교과
(국/도/사/수/과/기/가/영)

전 학년 내신 반영
(1년20%/ 2년30%/3년 50%)

내신성적
50%

선발시험
50%

2015학년도부터 적용